



제니스, 스틸 소재에 메탈릭 블루 다이얼을 더한 새로운 **CHRONOMASTER SPORT** 레퍼런스를 선보이다

2023년 10월 10일, 르 로클: 광활한 밤하늘과 수많은 별, 그리고 열망을 품은 블루 컬러가 펼쳐집니다. 제니스가 모던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엘 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 Chronomaster Sport 에 시그니처 컬러를 더한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Chronomaster Sport 는 색다른 다이얼뿐 아니라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DeLuca” 및 “Rainbow” 레퍼런스를 차용한 블루 다이얼 및 폴리싱 처리된 스틸 베젤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21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Grand Prix d'Horlogerie de Genève)에서 “크로노그래프” 상을 거머쥔 Chronomaster Sport 는 제니스가 보유한 독보적인 오토매틱 고진동 크로노그래프 유산을 엿볼 수 있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정밀 고진동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 모델은 0.1 초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선보이며, 이와 함께 베젤에 10 초 단위로 표시된 눈금을 통해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하고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제니스 엘 프리메로 특유의 매력을 선사하는 Chronomaster Sport 가 이제 전체에 스틸 소재를 활용한 외관과 화려한 블루 컬러의 삼색 다이얼로 출시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엘 프리메로 레퍼런스와 1969년 칼리버 도입 전 출시되었던 제니스 크로노그래프 레퍼런스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이 돋보이는 블루 다이얼 버전의 Chronomaster Sport 에서는 1980년대의 “DeLuca”와 1990년대 초 “Rainbow”와 같은 2가지의 특별한 엘 프리메로 레퍼런스를 엿볼 수 있습니다. 펌프 스타일 푸시 버튼이 탑재된 41mm 스틸 케이스에 자리한 0.1 초 인그레이빙 베젤은 Chronomaster Sport 스틸 코어 컬렉션 사상 최초로 세라믹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선보입니다. 폴리싱 처리된 표면과 블랙 컬러를 채운 인그레이빙 마커는 과거의 엘 프리메로 모델을 연상시키며 확고한 레트로 감성을 선사합니다. 3개의 링크를 활용한 스틸 브레이슬릿은 조절 가능한 클래스프와 어우러져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합니다.

선버스트 마감 기법을 적용한 메탈릭 블루 컬러를 입은 새로운 Chronomaster Sport 의 다이얼은 대비, 텍스처, 깊이감 있는 디자인의 조화를 선보입니다. 동시에 이 모델은 DeLuca 와 Rainbow 모델 모두 블루 다이얼 옵션으로 출시되었다는 점을 떠올리게 하며 유서 깊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 프리메로의 상징적인 디자인 디테일로 손꼽히는 삼색 다이얼은 새로운 맥락을 배경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레이 및 블루 컬러의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는 블루 카운터 및 블루 다이얼과는 서로 다른 톤 및 마감 기법을 적용해 독보적인 자태를 선사합니다. 날짜 월 또한 다이얼과 같은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사랑받으며 성능과 정확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제니스 크로노그래프의 신제품, Chronomaster Sport 에는 최신 버전의 엘 프리메로 칼리버 엘 프리메로 3600이 탑재됩니다. 5Hz의 고진동(시간당 36,000회) 무브먼트는 0.1초까지 완벽하게 표시하며, 여기에 60시간으로 늘어난



파워 리저브가 더욱 뛰어난 자율성을 선사합니다.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백을 통해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모던한 무브먼트는 유려하고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블루 컬럼 휠과 제니스 스타 모티브가 장식된 오픈 로터의 매력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틸 소재에 블루 다이얼을 탑재한 디자인으로 핵심 컬렉션에 새롭게 합류한 Chronomaster Sport 모델은 전 세계 제니스 부티크 및 공식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 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CHRONOMASTER SPORT

레퍼런스: 03.3114.3600/51.M3100

핵심 사항: 스틸 베젤에 0.1초 표시. 0.1초까지 측정 및 표시할 수 있는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60시간으로 늘어난 파워 리저브. 4시 30분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00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 - 5Hz

파워 리저브: 약 6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0.1초

크로노그래프: 10초에 1회 회전하는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핸드, 6시 방향에 위치한 60분 카운터, 3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

마감: 새로운 별 모양 로터 및 새틴 마감

가격: 10400 스위스 프랑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10ATM

케이스: 41mm

크리스탈: 양면에 반사 방지 처리한 돔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 블루 톤 선레이 패턴, 세 가지 컬러의 카운터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메탈 브레이슬릿

